

‘수시먹통·문항거래’ 도마에… 교육위 국감, 67개 기관 검증

오늘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수능문항거래, 대학 입시비리 등
유웨이 대표·조정식 등 증인채택
SNS 부작용 방지, AI챗봇 문제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올해 교육위 국감에서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와 수능 문항 거래 의혹을 비롯해 사학비리, 대학 입시 부정,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DT) 관련 법적 책임, 청소년 AI·SNS 부작용 등을 쟁점으로 다룬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위는 23일까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국립대 등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7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공공·관계 기관, 14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16일 서울대 등 대학·대학병원, 20~21일 지방 교육청·국립대를 감사하고 23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일반 증인 19명과 참고인 4명 등 23명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감장을 찾는다.

◆수시원서 접수장애, 유웨이측 출석

교육위는 오는 12일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장애 발생 경위와 연장 접수 과정, 피해 수험생 구제 문제 등을 물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웨이 특별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TF를 꾸려 정시모집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같은 날 대교협 감사도 예정된 만큼, 대행

업체의 시스템 안정성뿐 아니라 교육부와 대교협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항 거래 의혹·통합수능 질의

7일에는 영어 강사 조정식 씨가 문항 거래 의혹 증인으로 나선다. 사업가 감배관 씨도 문항 거래 관행을 묻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조 씨는 현직 교사 2명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67차례에

걸쳐 약 835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씨 측은 지난 4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날 수학 강사 정승제 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202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되는 수학 문·이과 통합 출제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내년 치러지는 수능부터는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모든 수험생이 공통 과목을 치른다.

◆사학비리·재단 운영 점검

7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최용주 총장·조동성 발전자문위원장·주미연 지속경영본부장이 사학비리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국감에서 세종대 법인 대양학원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교육부는 올해 3월 대양학원과 세종대학교에 대한 재무감사를 진행했다. 주명건 대양학원 명예이사장은 23일 세종호텔 운영과 법인 자산 관리 실태를 놓고 증인석에 선다. 황문찬 학교법인 배재학당 이사장도 같은 날 재단 비리 의혹으로 증인 신문을 받는다.

◆입시 비리·AI·SNS 현안도

대학 입시 공정성 문제도 다룬다. 16일

에는 박미자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 음대 입시 비리 의혹 증인으로, 김상곤 한국성악가협회 이사장이 입시 부정 관행 참고인으로 나온다.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청소년 보호 문제도 국감에 오른다. 7일에는 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혁신연구본부장이 AIDT 국외 손해배상 소송의 법적 책임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재훈 바이트댄스 유한책임회사 대표(틱톡코리아 총괄)와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아동·청소년 SNS 부작용 방지 문제를 두고 질의에 답한다. 23일에는 김준윤 스캐터랩 대표·이세영 뽀빠테크놀로지스 대표·이관형 일레븐 대표가 청소년 AI 챗봇 서비스 문제로 증인석에 선다.

이밖에 7일에는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채용 과정의 학력 차별 문제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14일에는 배정이 경기 이음온학교 교감과 하미진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장이 하이러닝 특허 의혹과 관련해 출석한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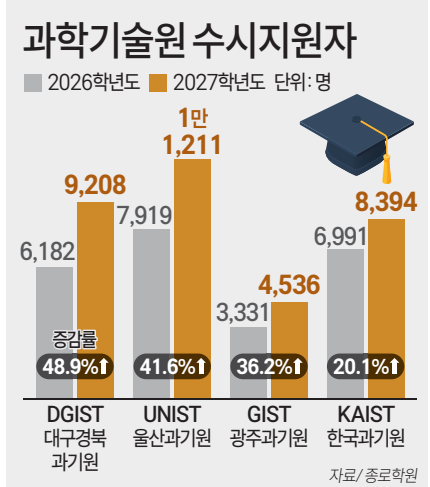


AI·반도체 열풍에 과기원 수시지원 역대최다

4개 과기원 수시 지원자 3만3349명
작년비 36.5% 증가… DGIST 49%↑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4개 과학기술원 지원자가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섰다. 입시업계는 AI 전공 신설로 모집인원이 늘어난 데다 반도체 계약학과 선호가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7학년도 국내 4개 과학기술원 수시 지원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과기원) 수시모집 지원자는 총 3만334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만4423명보다 8926명(36.5%) 늘었다. 4개 과기원 평균 경쟁률도 전년(14.14대1)보다 높은 16.13대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DGIST 28.6대1, UNIST 19.84대1, GIST 14.40대1, KAIST 9.70대1 순이었다.



지원자 증가율은 DGIST가 가장 높았다. DGIST는 지난해 6182명에서 올해 9208명으로 지원자가 3026명(48.9%) 늘었다. UNIST는 7919명에서 1만2211명으로 3292명(41.6%), GIST는 3331명에서 4536명으로 1205명(36.2%), KAIST는 6991명에서 8394명으로 1403명(20.1%) 증가했다.

4개 과기원은 올해 AI 관련 전공을 신

설하면서 모집인원을 지난해보다 총 340명 늘렸다. DGIST·UNIST·GIST가 각각 100명, KAIST가 40명을 증원했다. 이에 따라 4개 과기원의 전체 모집인원은 1727명에서 2067명으로 확대됐다.

반도체 학과의 지원자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4개 과기원은 모두 삼성전자 연계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GIST 반도체공학과 지원자는 지난해 160명에서 올해 289명으로 80.6% 가장 크게 늘었다. 이어 DGIST 반도체공학과도 267명에서 411명으로 53.9% 증가했다. 경쟁률 역시 GIST는 6.40대1에서 11.56대1로, DGIST는 9.89대1에서 15.22대1로 올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AI 전공의 정원 확대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를 향한 이·공계 수험생들의 관심이 과기원 지원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임 대표는 “과기원 모집 정원, 지원자가 동시에 증가한 상황에서 의대, 다른 대학이 공계 관련학과 중복 합격도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늘고 전문대 줄었다

고등교육기관 유형·지역별 온도차
전문대 신입생 23.7%↓, 4년제 5배

학령인구 감소 속 고등교육기관 별 온도차가 뚜렷하다. 대학은 학교 수와 학생수가 증가한 반면, 전문대학은 학교와 학생이 모두 줄었다. 특히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학생이 절반 넘게 줄어 학교 유형·지역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6일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6~21세)는 2000년 1138만 3000명에서 2025년 697만9000명으로 25년 새 440만4000명(38.7%) 줄었다.

4년제 대학과 전문·기능대학을 합친 신입생은 2016년 57만5000명에서 2023년 50만4000명으로 7년 새 7만1000명(12.3%) 줄었다. 학제별로는 4년제 대학이 35만5000명에서 33만8000명으로 4.8% 감소했다. 반면, 전문·기능대학은 21만

9000명에서 16만7000명으로 23.7% 줄어 감소율이 4년제 대학의 약 5배에 달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6일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2026'에 따르면, 올해 기준 대학은 195개교로 2000년(191개교)보다 4개교(2.1%) 늘었다. 재적학생 수도 185만6927명에서 189만4516명으로 3만7589명(2.0%) 증가했다.

반면 전문대학은 2000년 158개교에서 32개교(20.3%) 줄어든 126개교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문대 재적학생 수는 91만3273명에서 50만4897명으로 40만8376명(44.7%) 감소했다.

학교 수 감소는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2000년 109개교에서 올해 84개교로 25개교(22.9%) 줄었고, 수도권 전문대학은 2000년 49개교에서 올해 42개교로 7개교(14.3%) 감소했다.

/김수정 기자

중3 맞춤 진로상담… 대입개편 불안 최소화

서울시교육청, 1대1 상담센터 운영

대입제도 개편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중3 집중진학상담센터’를 신설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연구정보원은 2028학년도 제도 개

편 및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학생들이 대입까지 이어지는 학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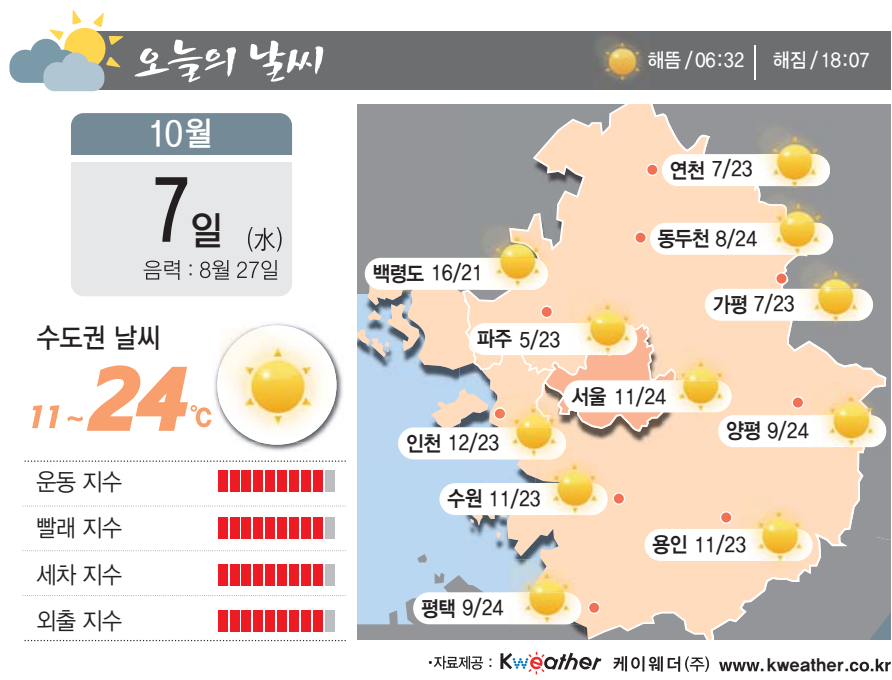
상담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7일간 1대1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총 350회 진행한다. 서울진로진학학업설계지원단 소속 교사들이 상담을 맡아 ▲고등학교 선택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대입 연계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등을 안내한다.

신청은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에서 선착순으로 받으며, 대상은 서울 지역 중학교3학년 학생과 학부모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중학교3학년에서부터 학생의 진로 성장에 발맞춘 지속적인 진로진학·학업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부담 없이 진학 설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네팔, 대홍수 40일 만에 수색·구조 종료…재건 집중 /사진 뉴시스
▲中, 첫 해저 CO₂ 주입 플랫폼 건설…연 100만t 해저 저장

▲美 국무, 아이슬란드 방문…“안전한 북극·국방 협력 추진”
▲美 중간선거 변수로 떠오른 대법원…접전지 소송 판단 주목

▲전 미국군장관 “우크라이나, 적은 예산에도 더 나은 무기…변화 속도 굴욕적”
▲다카이치, G7 화상 정상회의 불참 논란에…“당일 급히 잡혀”